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이신 부모님이 반대할 것 같아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A 출가 결심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결정을 하셨네요. 출가는 도피가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자의 길입니다. 출가의 목적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즉, 성불에 있습니다. 출가자뿐만 아니라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제자라면 누구든지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천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대장부의 길이라 했습니다. 대장부는 장부 중의 장부라는 말로 모든 이의 안락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가는 바로 이러한 명확하고도 뚜렷한 서원과 신심이 깊이 뿌리 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듯이 서원과 신심이 견고한 자가 더욱 수승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가는 위대한 포기입니다. 영원한 자유와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취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즐거움, 옳음, 좋음, 아름다움 등의 분별심을 포기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포기를 통해 위대한 승자가 되는 것이 출가입니다.

출가는 이러한 명확하고도 뚜렷한 서원과 신심 깊이 뿌리 내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잘 맺듯이 서원과 신심이 견고한 자가 더욱 수승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는 데는 많은 인내와 끝없는 정진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반대가 걱정된다고 몰래 출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가하겠다는 소식이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와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출가에 대한 참 의미를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면 부모님도 이해해주시고, 출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출가하려는데 가톨릭 신자 부모님 어찌 설득할까요?

‘위대한 포기’ 출가의 의미 말씀드리고 이해 구해야

Q 매일 <금강경> 독송, 108배를 하고 있는 중년의 주부입니다. 저는 왕따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 받았습니다. 성년이 돼 부모를 찾았지만 부모는 제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이용하고,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듣곤 합니다. 전생에 살생의 과보가 있으면 이생에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일까요?

A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선업으로 과거를 갚는 자는 무서운 인과라 할지라도 능히 단절할 수 있어 마치 구름 사이에서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라고 설했습니다.

인과응보는 엄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참된 뉘우침과 행동의 개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밝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설했습니다.

흔히 “험한 사주팔자를 타고나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되며 병도 많고 인덕도 없다”는 식으로 운명과 사주를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을 스승으로 삼고 장애를 성공의 디딤돌로 딛어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에 엄마로 부터 사랑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인관계 중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자신은 온 정성을 다해서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 · 인정 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기대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지요. 비록 어린 시절 부모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도 이제는 가족이 있으니 어릴 때 채우지 못한 욕구를 지금 가족들과의 충분한 사랑으로 채워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처럼 종교 생활로 채우는 방법도 있고요.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마음 편해지는 불법 만나 고마워요

희망법당 탐방

연천 태풍부대 일심정사

제28사단 태풍부대 내 군법당 일심정사에서 최영식 포교사(오른쪽)가 일요법회를 집전하고 있다. 일요법회에 참석한 30여 병사들이 진지한 자세로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있다.

“부처님! 당신의 한결같은 보살핌에 힘입어 저희들 어린 무리는 깨달음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과 군복무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법회를 봉행하는 생활인의 불교를 닦아 나가고자 하옵니다.”

군 장병 30여 명이 법당 안을 가득 메우고 일승발원문을 낭독했다. 그리고 병사들은 최영식 포교사(조계종 포교사단 군7팀)의 목탁에 맞춰 <반야심경> 독송도 했다. 교회오빠는 있어도 절오빠는 없다는데, 태풍부대 일심정사에는 사회에 나가면 딱 ‘절오빠’ 또래인 젊은 남성불자들이 가득하다.

기상 악화로 40년 만에 봄 같지 않다는 봄날이 계속되는 요즘이다. 경기 연천 태풍부대 일심정사에서 일요법회가 열렸던 4월 25일은 맑고 따뜻했다.

일심정사는 경기도 연천군 제28사단 태풍부대 내 군법당이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차로 1시간 걸리는 이곳은 중부지역 최전방이다. 최전방에 위치한다는 물리적 · 심리적 부담은 태풍부대를 군포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 적도 있었다. 그래서 포교활동을 펼치겠다는 원력으로 일심정사를 찾았던 포교사 중에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한 이가 부지기수였다.

이런 가운데 최영식 · 이명락 포교사 등은 3년째 일심정사를 찾아 장병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 햇수로는 3년이지만 날수로는 1000일 기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전방지역은 특히 포교사가 부족합니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다보니 포교에 나섰다가 도중하차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단 · 연대급 이상은 군법사가 상주하다시피 하며 법당 운영이 체계적이지만, 전방지역 군법당들은 법당이 제대로 구비된 곳도 드물고 법사도 만나기 힘듭니다. 포교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입니다.”

최영식 포교사는 젊은 불자 양성에 원력을 세우고 한 달에 두 번 일심정사를 찾는다. 자신과의 약속이자 부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군포교는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한 터전으로 미래 불교의 대안이라는 포교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방지역 포교인력 부족은 불교계의 난제이다. 하지만 최 포교사와 같은 포교사들의 원력이 있어 일심정사만 해도 매주 30여 장병들이 법당을 찾아 불심을 키우고 있다.

최영식 포교사는 “많은 장병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먼저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군포교 활동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쉬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지만 군포교 활동을 하면 뜻 깊은 하루가 되고 사명감도 생긴다”며 “고령자 비율이 높고, 여성불자 수가 남성보다 높은 한국불교 상황에서 젊은 남성 불자수를 늘리려면 군장병 포교에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방 군법당 포교 시각지대… 체계적 지원 시급

남성 불자수 늘리려면 군장병 포교에 주력해야

교계에서 볼멘소리처럼 끊이지 않는 지적 가운데 하나는 “사찰을 찾는 젊은 불자가 없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는 현실 비판의 소리가 뾰족한 대안으로 교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끼를 먹어도 늘 배고플 나이인 장병들에게 먹을거리는 중요합니다. 어떤 간식거리를 주느냐에 따라 종교시설을 찾는 장병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포교사들이 장병들 간식거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담은 전액 포교사 개인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에서는 “절에 가면 잠, 성당 가면 먹을 것, 교회 가면 여자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웃종교에 비해 군포교에 대한 불교계 지원이 열악하다는 말이다.

일심정사는 최 포교사 등의 군포교에 대한 열정이 이룬 도량이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던 낡고 헐던 법당을 3년 전 당시 부대장이던 고태남 중령과 선홍래 원사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 입어 새로 개비했다. 예전 천주교 공소로 사용되다 찾는 이가 없어 빈 공간이 됐던 곳을 지금의 일심정사로 단장했다.

부대장의 지원으로 마련된 공간을 꾸미는 것은 최영식 · 이명락 포교사의 몫이었다. 일심정사를 찾는 포교사들은 사비를 들여 법당에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들여 놓았다. 법당을 찾는 군장병들의 편의를 위한 보살 같은 자비심의 발로였다.

최 포교사는 “교계의 지원이 부족해 개인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단 몇 명이 오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며 “법회마다 장병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방에서의 군포교는 법사들의 사명의식이 중요하다. 이를 잘 키우려면 교계 전체와 스님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심정사를 관리하는 군종병인 조주완 상병(22)도 “개신교에 비해 불교계는 지원이 부족한 편이다. 부대 내 교회에서는 외부 교회와 단체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오지만 일심정사에서는 포교사, 연대 법사님이 사비로 모든 것을 충당한다. 가끔 부족할 경우에는 병사들의 용돈에서 충당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법회 후에는 다과와 개인상담도 이어졌다.

이날 최영식 포교사에게 교리 상담을 하던 이강민 일병(22)은 “처음에는 일요일날 의무적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왔는데 매주 법회에 참여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교를 차츰 배우게 되니 불법을 만난 것이 고맙게 느껴진다. 제대 후에도 꾸준히 신행활동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법회가 끝난 뒤 최영식 포교사와 군종병들은 기념촬영을 했다. 병사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젊고 한창인 나이에 국방수호를 위해 의무를 다하는 병사들을 보니 기특하고 안쓰럽기도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은 딱 귀여운 군인아저씨다. 이들이 별 탈 없이 무사히 제대할 수 있기를, 그리고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들에게 더욱 큰 관심을 보여 지원하기를 발원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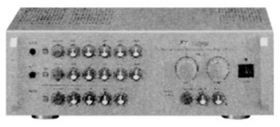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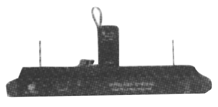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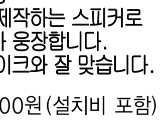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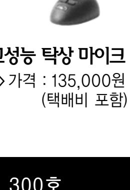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텐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 마이크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추 원효보살 열반 1324주기 추모대재 모

진리의 새벽을 여신
우리의 스승 **원효보살** 열반대재에
불자여 함께 모여 추모 합시다.

일 시 : 불기 2554(2010)년 5월 8일 정오
장 소 : 원효보살 성상앞 (용산구 효창공원내)

대한불교원효종 봉행위원장 **향운** 합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601호 ☏ 02)735-0501 ~ 2 / FAX 02)736-3509